

■ AID調查團 報告書 ■

## 韓國에 있어서의 發展的인 出版活動과 이의 是正方案 (1)

張 一 世; 譯

〔譯者註〕 이 報告書는 1966年 6月 5일부터 6月 24日까지에 國際開發處(AID)의 財政的인 支援으로 우리 나라의 出版狀況과 問題點들을 調査한 월프經營調查代行社(Wolf Management Service)의 調査團에 依하여 作成되어 AID에 提出된 것이다.

出版과 圖書館과는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調査團은 우리 나라의 各級 圖書館에 대하여도 仔細하게 調査하였다.

이 調査團에 依한 調査는 짧은 調査期間으로 因한 調査의 未備와 不充分한 參考資料로 말미암아 統計에 있어서 또는 其他 그들의 見解에 있어서 多少 疑問視되는 點이 없는 것은 아니나 美國의 有能한 出版 및 圖書館 專門家들 눈에 비친 우리 나라의 各級 圖書館界에 對한 觀察은 우리들에게도 큰 敎訓을 던져 줄 뿐만 아니라 우리 自身이 反省하는 좋은 契機를 마련해 주었으며, 또 그들이 結論으로서 推薦한 勸獎事項들은 우리들 圖書館人들에게도 至大한 關心事項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譯者는 이 報告書가 우리들 圖書館人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그 가운데서 圖書館關係部門만을 뽑아 全文을 翻譯 連載하기로 하였다. 圖書館人들에게 多少라도 參考가 된다면 譯者가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參考로 調査團員을 簡單히 紹介한다. 團長 스텐리 A. 바넷(월프經營調查代行社 國際作業部部長, 經濟開發專門家 데이브 케이서 圖書館學博士(피바디大學, 스키아리트大學 및 맨다빌트大學 聯合大學圖書館館長, 圖書館學教授) 에를 D. 미체나(教育圖書出版社 실버 버넛트會社 副社長兼 同社 國際部 部長, 高等學校 校長, 獎學士歷任) C. 월터 스톤 博士(피츠버어그大學 圖書館學 및 教育學教授兼 同大學 圖書館長)

###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 圖書館

圖書館法(大統領令 1424號)의 많은 廣範한 規定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條項이 있다.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두어야 한다. 文教부와 教師와 行政家 및 教育廳은 지난 3年 以來 거의 狂의으로 이 새로운 法에 따르고자 努力하였으나 이에 따르기는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初等 및 中等教育 水準에 있어서의 教育隘路는 매우 크므로, 圖書館의 必要性에 대하여 關心을 끄는 것은 더욱 切實히 要求되는 教室, 教師 및 基本的인 教育施設 및 資料의 必要性으로 因하여 甚한 競爭을 받고 있다. 平均 크기의 教室에 60名 以上 90名까지의 學生을 收容하고, 더욱이 2部制, 3部制 또는 그 以上の 部制으로써 學校를 運營하는 이 마당에 圖書館 設置要求와 같은 새로운 政府의 賦課는 이에 追從한다기 보다는 가끔 自進하여 따라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大部分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도 比較的 最近의 現象이다. 7,034校의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의 겨우 20% 만이 圖書館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一部分만이 學生閱覽座席을 가지고 있

으며 大部分은 단지 圖書備置場所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의 京畿中高等學校와 같이 15,000卷의 藏書를 가지고 있고, 거의 10年 以上 開架式閱覽方法과 圖書의 家庭貸出, 한 주일 64時間開館에 專門教育을 받은 司書가 있는 學校圖書館은 단일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매우 드물 것이다. 京畿中高校의 圖書館은 아마 그의 目的으로 보아 地球上의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圖書館의 하나로 看做될 것이고 韓國에 있어서는 참으로 뚜렷한 存在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다른 地方에 있어서의 學校 學生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높은 水準의 圖書館奉仕가 強力히 推進되고 있다는 것에 留意한다는 것은 歌舞의이며 希望의이다. 예를 든다면 慶尙南道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 發展은 印象的이다. 學校圖書館 發展을 위한 健全한 計劃이 마련되었으며, 現代的인 運營方法을 充分히 理解하는 것을 證明하는 一連의 示範圖書館이 開發되었다. 大部分의 境遇에 있어서 開架制이고, 圖書의 家庭貸出이 勸獎되고 있으며, 大部分의 圖書館 備品까지도 그 곳에서 作成된 規格에 따라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1963年 慶尙南道에서 考案된 進取的인 同道 學校圖書

館計劃은 國民學校에 있어서는 學生 1人當 2冊, 中學校는 1人當 4冊……合計 1,717,292冊을 1966年末까지 確保하는 것이다. 이計劃을 完全히 達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成果를 이머 거두었다. 計劃이 始作되었을 무렵에는 慶南의 모든 學校에는 단지 391,586卷의 圖書가 있었을 뿐이지만 1966年 5月 31日 現在에는 1,031,731卷으로 增加하였으며, 繼續하여서 굉장한 速度로 增加하고 있었다. 政府의 補助金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試圖가 圖書館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 加해졌다. 學生들이 休紙를 모아 팔았다. 學生들은 벼와 보리갈의 杼를 파라는,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팔아 거기에서 얻은 收入金은 學校圖書館의 圖書 購入費로 充當하였다.

이와 같은 活動의이고 創造的인 指導의 結果로서 慶尙南道는 韓國의 다른 10個道보다 圖書館計劃과 發展에 있어서 越等하게 앞서고 있다. 1966年 3月 31日 現在 學校數 1,161個校의 80.2%가 圖書館을 가지고 있고, 學生數 709,361名이 1名當 1.58冊을 가지게 되었다는 事實은 자랑할 만하다. 圖書館數에 있어서 慶南에 가장 가까운 競爭者는 全羅南道인데, 學校의 69%가 圖書館을 가지고 있는데 比하여 圖書는 學生 1人當 0.71卷에 지나지 않으며, 서울市는 學生 1人當 0.9冊인데 대하여 圖書館은 學校數의 不過 22%에 지나지 않는다.

1963년에 公布된 圖書館法이 韓國 전체 學校圖書館에 준 놀란만한 衝擊은 公布以後의 統計로써 明白히 觀察할 수 있다.

初等 및 中等學校圖書館發展統計  
(1962~1965)

| 年度   | 圖書館數  | 職員數   | 閱覽座席數  | 藏書數       |
|------|-------|-------|--------|-----------|
| 1962 | 149   | 335   | 18,065 | 403,528   |
| 1963 | 259   | 739   | 23,779 | 583,929   |
| 1964 | 950   | 1,127 | 55,919 | 1,349,343 |
| 1965 | 1,422 | 1,424 | 94,146 | 1,944,737 |

· 韓國圖書館協會 調査에 依함

1966년에는 또 다시 이表에 더 많은 數가 增加될 것이다. 慶尙南道만 하더라도 1966年末에는 996個의 圖書館과 2,692名의 司書教師 및 1,717,292冊의 圖書 確保를 期待하고 있으며, 慶南과 같이 다른 地域에 있어서의 發展도 눈부신 바가 있다. 始發的인 藏書, 施設 및 奉仕가 적어도 서울, 仁川, 大邱 및 기타 地域에서 示範的인 것 하지만 엇보이고 있다.

富裕한 道도 아닌 慶尙南道의 經驗에서 發見되는 重要한 意義는 學校圖書館이 教育制度의 領域 안에 있다

는 것이다. 그 곳에서는 圖書館의 必要性에 共鳴을 받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發展시킬 것인가에 대한 知識을 가지고 있으며, 어렵기는 하지만 財政問題를 解決할 能力이 있고, 그리고 圖書館 設立을 위한 當局의 支持를 받고 있다. 가장 必要로 하는 것은 빈틈 없는 洞察力과 健全한 計劃, 效果的인 指導力 및 偉大한 努力이다. 한 道가 그러한 要素를 充分히 가질 수 있다는 事實은 다른 道에서도 그와 같이 훌륭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大學圖書館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韓國은 學校圖書館史보다 더 긴 大學圖書館史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여서 現代의인 大學圖書館 奉仕는 겨우 10年前부터였다.

國立서울大學校 圖書館은 日本人에 의하여 運營되던 舊式인 京城帝國大學圖書館에서 1945년부터 發展되었다. 現在 中央圖書館과 몇몇의 單科大學圖書館에는 藏書가 約 90萬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學術研究活動에 比較的 廣範圍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1956년에는 延世大學校에, 그리고 얼마 후에는 梨花女子大學校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된 後 적으나마 繼續的으로 젊은 卒業生들이 學術研究圖書館에 밀려 들기 始作하였다. 그러한 圖書館에 있어서의 再組織의 大部分은……勿論 全部는 아니지만……現代의인 圖書館 慣習대로 이루어졌다.

a) 不充分한 藏書와 “知的 排出口”

大部分의 圖書館은 그들의 藏書가 겨우 몇사람의 젊은 學者 밖에 읽을 수 없는 낡고 그리고 漸次 頹廢가는 日本冊을 多量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앓고 있다. 이 事實만으로도 韓國의 大學圖書館 藏書를 25%가량 效果的인 規模로 減少시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圖書館……圖書館統計의 增加로 因하여……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圖書임을 不問하고 分別 없이 받아 들였으므로 1965年末까지에 만도 學術研究圖書館 所藏 3,951,379卷 가운데 1,634,268卷이 西洋圖書(大部分이 英語書籍)이며 그 大部分은 형편 없이 選定된 것으로서 結果的으로 教育資料 및 研究資料로서 거의 價値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大部分의 學生들 측으로 본다면 英語實力이 낮은 關係로 有用한 圖書일지라도 거의 읽히지 못한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學術圖書館 藏書의 潛在的인 利用價値는 보통 統計가 나타내는 것의 半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看做된다.

韓國大學圖書館 藏書의 中間 規模는 겨우 36,000卷이므로 各機關當 平均的인 有用圖書量은 대체로 15,000卷에서 20,000卷線이다. 이와 같은 藏書는 明白히 學

## 大學圖書館發展表

(1955—1965)

| 年度   | 圖書館數 | 職員數 | 閱覽座席數  | 藏書量       |
|------|------|-----|--------|-----------|
| 1955 | 43   | 207 | 4,194  | 1,297,034 |
| 1956 | 58   | 252 | 5,757  | 1,661,342 |
| 1957 | 65   | 363 | 11,384 | 2,079,141 |
| 1958 | 66   | 358 | 12,172 | 2,379,003 |
| 1959 | 70   | 368 | 15,100 | 2,557,958 |
| 1960 | 68   | 405 | 14,610 | 2,285,335 |
| 1962 | 75   | 522 | 18,516 | 3,072,616 |
| 1963 | 93   | 740 | 24,247 | 3,361,786 |
| 1964 | 101  | 759 | 27,188 | 3,634,154 |
| 1965 | 109  | 838 | 28,231 | 3,951,379 |

·韓國圖書館協會集計에 依함

많은 金額이 大學圖書館建築을 위하여 近年에 쓰여지고 있으며, 各 國立大學과 其他 많은 私立大學은 現在 새 圖書館建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建築中에 있다. 大部分의 圖書館은 훌륭한데, 적어도 慶熙大學校 圖書館은 그의 어떤 部分은 宮殿 같다. 그러나 大部分의 圖書館은 紀念物的이고 遺物的이며 固定된 機能을 가진 圖書館 觀念에서의 設計에 基礎를 둔 것이므로, 만일 더 開放的이고, 利用者 中心인 融通性 있는 圖書館 奉仕로의 期待되는 方向으로 將次 發展한다면 틀림 없이 經濟的으로 改造하기에는 困難함을 經驗하게 될 것이다.

모든 大學圖書館은 카아드目錄을 가지고 있다. 더러는 2種 또는 그 以上の 目錄을 가지고 있고, 分類表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아직 모든 藏書가 다 整理되어 있지는 않다. 몇 몇 圖書館에 있어서는 눈에 띄이게 더러 局部的인 革新과 變化가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은 西洋國家에서 輸入된 傳統的인 典型的인 圖書館組織에 따르고 있다. 모든 學術研究圖書館은 訓練 받은 圖書館人들 中에서가 아니라 教授의 名簿 가운데서 뽑힌 館長에 依하여 監督되고 있다. 이들은 延世大學校나 또는 梨花女子大學校 그렇지 않으면 美國에서 教育 받은 專門司書들에 依하여, 그리고 一般事務職에 依하여 補助 받고 있다.

大部分의 學術圖書館들은 閱覽, 參考, 繼續刊行物, 整理 및 庶務係로 組織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圖書館은 東書, 西書를 不問하고 모두 閉架制이며 館外貸出은 極히 드물다. 實質的인 圖書館相互貸借制度는 아직 韓國의 學術研究圖書館間에 마련되어 있지 않

術的인 目的과 韓國이나 또는 기타 다른 나라의 必要性을 充實히 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圖書量이다. 이렇게 微弱한 藏書로서는 大學에서의 教授에 支障을 받을 뿐만 아니라 圖書를 通한 研究는 全然 不可能하므로 韓國을 떠나지 않고서는 研究를 할 수 없다. 進取的인 젊은 學者들은 그들의 圖書館에서의 뜻 있는 研究에 從事하고자 하는 그들의 慾望이 꺾이게 되며, 이런 結果는 틀림 없이 보다 充分한 圖書館施設을 가진 國家로의 「知的 排出口」를 찾는 重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國立서울大學校의 經驗은 모든 韓國圖書館에서의 一般的인 圖書의 不足을 말해 주고 있다. 1945年 以前에 서울大學校圖書館은 650,000卷의 圖書를 가지고 있었다. 解放後 서울大學校는 11個의 單科大學과 現在 6個의 새로운 大學院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大學校 圖書館, 即 大學校의 “心臟”으로서 表示되는 이 圖書館은 解放後 단지 150,000卷, 그나마도 大部分은 事實上 寄贈된 圖書만을 더 加했을 뿐이다. 1年間 豫算의 約 50%는 西洋圖書, 그리고 25%를 東洋圖書 購入으로 使用하는 서울大學校圖書館은 1965년에 寄附金에 의한 圖書의 補充과 겨우 1,500卷의 새로운 圖書를 購入할 수 있었을 뿐이다. 1963년에는 購入할 수 있었던 西洋圖書의 量은 圖貨의 平價切下로 말미암아 半減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平價切下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지금 12,000名의 學生과 500名의 教授에게 奉仕하는 서울大學校圖書館은 大學運營을 위한 總豫算의 1.2%… 4,000,000원(14,800弗)…을 받고 있다.

말 할 必要도 없이 藏書量의 不足이 오늘 날의 韓國 學術研究圖書館이 當面한 가장 重大한 問題이다. 이 問題는 同時에 그들과 關係 있는 機關들의 重大한 問題이기도 할 것이다. 圖書館들은 그뿐만 아니라 韓國의 學術雜誌 以外的 學術雜誌에 不足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 結果는 韓國 學者들이 外國에서 研究하고 있는 同僚들과 比較한 때 落後感을 느끼게 한다. 確實히 藏書 問題는 時急한 配慮와 解決이 要請된다.

## b) 오늘날의 學術研究圖書館

다음에 보여주는 表는 現在의 環境 아래에서는 누구나 合理的이라고 생각하는 바와 같이, 學術研究圖書館이 初等 및 中等學校圖書館보다 보다 正常的으로 成長하고 있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1965년에 있어서의 全體 圖書館數中 50個館이 서울市에 있는데, 그 圖書館에는 471名의 職員과, 圖書館의 閱覽座席中 17,808席, 그리고 나라 全體의 圖書館 藏書中 2,641,261冊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달리 表現한다면 어떠한 方法을 適用하여서 評價하더라도 韓國의 모든 學術研究圖書의 半數以上の 圖書館奉仕의 施設이 首都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은데, 그 이유는 一般의 藏書量의 不足에서이지만 非公式的이나마 서울市內의 4個 大學 사이에서는 必要할 때마다 資料交換을 許可함으로써 奉仕하고 있다.

圖書館들의 國家綜合目錄 및 繼續刊行物 綜合目錄 같은 國家書誌奉仕의 不足으로 다 같이 困難을 받고 있다.

人文科學 爲主로부터 技術科學部門 爲主의 文教部의 當面政策 轉換은 얼마 안 가서 圖書館藏書에도 影響을 줄 것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도 韓國의 科學, 技術, 産業 및 專門職業 發展에 適合한 資料들을 보다 많이 所藏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利用될 수 있는 機關을 통한 資料의 增大로서 大學圖書館奉仕 擴大計劃이 반드시 發展될 수 있도록 着手되어야 하고, 따라서 資料蒐集과 適切한 奉仕計劃도 짜여져야 한다.

視聽覺資料는 大部分의 韓國大學에서 各各 獨立의 視聽覺 센터에서 取扱하고 있다. 이러한 慣例 때문에 圖書館 責任이 非圖書資料, 視聽覺器具 또는 視聽覺資料奉仕에는 全然 考慮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國立 마이크로 필름 奉仕機關 같은 것이 早速히 必要하다. 또한 寫眞複寫器具도 必要하다. 韓國 圖書館에 있어서는 제록스(Xerox)施設을 利用할 곳이 없다. 學生들에게 宿題로서 指定된 圖書를 얻기 어려우므로 盜難과 切取가 많게 된다.

#### c) 機械的인 暗記와 學術研究圖書館

大學 自體에 있어서 重要한 要素가 缺乏되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效果的인 圖書館 利用은 不可能한 것이다. 卽 그것은 “圖書利用” 指導法이다.

藏書量과 教授方法의 相互作用은 어느 程度 “답과 달걀” 關係처럼 類似하다. 韓國의 教授들은 必要한 圖書가 없으므로 圖書利用方法에 따른 教授方法을 使用할 수 없다고 몇몇이 主張하고 있다. 한 英文學 教授가 말하기를 碩士學位課程인 學生을 Robert Frost에 關한 論文을 쓰도록 하기 위해 圖書館에 보냈으나 名文集에

收錄된 몇 篇을 除外하고는 Frost의 著作을 發見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逸話는 無限이 많을 것이다. 가령 韓國의 圖書館이 強力하다 할지라도 教育目的의 再考慮에 基礎를 둔 課程의 再組織 없이 圖書館 利用의 極大化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단 곳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韓國의 教育은 古代 中國인들이 力說하고 日本人들에 의하여 더욱 強調된 機械的暗記方式이 直接 傳來하였다. 年歲가 많은 教授들은 이러한 傳統 속에서 모든 教育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研究方法이나 또 “問題解決” 方法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또한 個別化 研究를 強調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教授들은 오히려 學生들의 正當한 圖書館의 必要性에 대한 疑心조차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分들은 教授만이 그의 個人的인 研究와 講義準備로서 圖書館이 必要한 것이고 學生은 歷史의 으로 받아들인 教科書—講義—復習—試驗이란 循環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明白히 教授들이 그들 教室에서 보다 폭 넓은 圖書利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學生들로부터 높은 水準의 圖書館利用의 要求가 있기 前에는 完全한 規模의 圖書館 開發이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大學에서의 教授方法에 그와 같은 革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徵兆가 보이고 있다. 西洋에서 教育 받은 教授들이 圖書를 利用하여 指導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學生들은 教育 받는다는 것은 단지 事實만을 蓄積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漸漸 깨달아 오고 있다. 現在 現代的인 圖書館奉仕를 받고 있는 中高等學校 學生들이 數年內로 大學에 들어 오게 되면 發展된 大學圖書館 要求에 대한 壓力을 또한 期待할 수 있다. 그러한 壓力은 藏書가 現在 水準의 職員과 建物에 相應하도록 增加하여야 한다는 것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40面에서 繼續)

#### 結 語

우리 學校圖書館에서 取扱해야 할 非圖書資料는 그 種類가 相當히 많다. 新聞, 雜誌, 버어터컬 파일, 필름, 레코오드, 슬라이드, 地圖, 葉書, 小冊子, 傳單 等等, 或 우리 周邊에는 只今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훌륭한 資料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資料를 蒐集, 保管, 整理하여 여러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이 圖書館의 使命이라면 어떠한 資料도 그 重要性의 輕重은 없을 것이며 어떤 資料도 未整理된 채로

死藏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學校圖書館의 大多數가 新設이요 出發이므로 아직 여러 가지 資料가 未整理 狀態로 쌓여 있어 泰山 같은 業務量에 壓迫感을 느끼며 지내면서도 應分의 待遇를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 一線 司書教師인 것도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司書教師들은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 獻身的인 奉仕에 努力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各種의 非圖書資料도 한 가지 한 가지 整理하여야 할 時期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모든 教育資料가 學校圖書館에 歸屬되고 學校圖書館의 本然의 姿勢를 찾아 맡은 바 使命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진다.